

작년 상가임대차분쟁 원인 1위 '권리금'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이며 이중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중 조정대상사건은 77건이었다.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이었다. 현재 14건이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총 154건 접수...73건 조정완료 "공정하고 빠른 조정 가능하도록 노력"

접수된 안건을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다. 이어 '임대료 조정(16.4%)', '원상회복(13.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는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 법률문제 등을 상담해준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66건

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는 2017년 1만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이중 '임대료'와 관련된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는 3196건, '법적용 대상' 2271건, '권리금' 2229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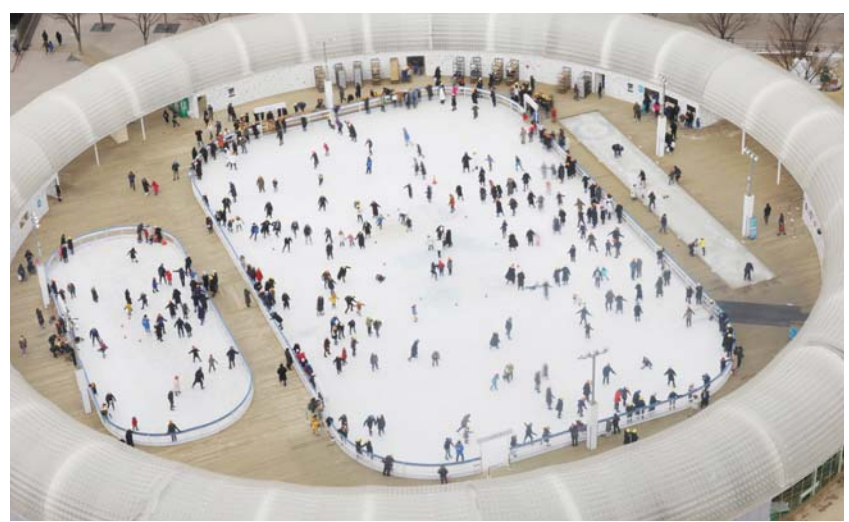
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02-2133-1211)로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할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 예방은 물론 사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황별 밀착상담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빠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2만4천명 방문 '제로페이 결제'는 매출 1.2%에 불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52일간 운영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총 12만4456명의 시민이 방문한 가운데 전체 매출 총액 중 제로페이 매출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이 악화돼 운영중단 된 9일은 제외한 43일 동안 제로페이, 백원의 행복' 이벤트(입장료 90% 할인, 일 선착순 100명)의 입장료 할인과 카페, 매점 이용 등을 통해 결제된 제로페이 건수는 총 1917건이었다.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입장료 1671건(8.72%), 매점 161건(8.4%), 카페 85건(4.4%) 순이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9일을 제외한 43일 동안 매일 45건의 결제가 이뤄졌다.

제로페이 매출 총액 314만9000원의 평균 결제 금액은 1643원으로, 입장료 할인이 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전체 매출은 2억6209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제로페이 매출은 전체 매출의 1.2%에 해당하는 314만9000원에 불과했다.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입장료 1671건(8.72%), 매점 161건(8.4%), 카페 85건(4.4%) 순이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9일을 제외한 43일 동안 매일 45건의 결제가 이뤄졌다.

제로페이 매출 총액 314만9000원의 평균 결제 금액은 1643원으로, 입장료 할인이 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스

연일 몰려오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서울시의회 · 교육청 강공모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강공모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이 각 사립유치원에 보낸 공문에는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미가입 유치원의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사들은 한유총 사태와 교사는 관련이 없다며 교사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라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금 묘했다. 우리는 원래 교사 인건비 문제는 오히려 유치원에 대한 것이지 교사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것을)의회가 일치 시켜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풀기 애매하다.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사인건비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처음학교로 참여 ▲원비 인상률(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정지원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도 "교육감이 금강산에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도 처음학교로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내면 지원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는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 참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 항의방문을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릴레이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한유총 서울지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가자로 100명을 신고했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준비해온 항의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반면 침묵시위 반대편에서는 에듀파인을 활용한 재정·회계연수에 참가하는 유치원 관계자들의 신분확인하는 상반된 장면이 펼쳐졌다.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은 서울에 52개가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30개의 유치원에서 참가했다. 의무도입 대상이 아닌 유치원 약 20곳도 연수를 받으러 왔다.

뉴스스

- 조희연 "한유총에 단호기조...교사인건비 변경 입장 정한 바"없
- 장인홍 "국민 세금 쓰는데 처음학교로·에듀파인은 최소한 조치"
- 유치원 교사들은 릴레이 침묵시위 시작해...교사 항의서도 전달
- 침묵시위 반대편엔 에듀파인 연수 참가 신분확인 상반된 장면

'교사인건비 지원에 변화가 있는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정했다. 그러나 변경 입장을 안 정했다 지금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에도 연관이 돼 있고 교육부나 다른 부분과도 협의할 해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한테 전체적으로 단호하게 하고 있는 기조라 조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광주교육청, 경기교육청, 충북교육청 등도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재정적 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정부·의회·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대오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 만큼 보조를 맞춰갈 수 밖

지역광고판매장소 정문역빌딩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서울시 '돌봄SOS센터' 오는 7월 개소

5개 자치구 시범운영 후 2021년 전 자치구 확대

서울시가 시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오는 7월 개소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돌봄SOS센터'는 복지·보건·의료 서비스의 통합 창구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할 때부터 병의원 방문, 형광등 교체 등 일상적 돌봄까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우선 7월 '성동·노원, 은평, 마포, 강서' 등 5개 자치구에 시범 사업을 시작한 뒤 2021년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된다.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어르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돌봄유구가 있는 시민 누구나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에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계해준다.

'돌봄SOS센터'의 주요 기능은 ▲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을 통한 제도권 밖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우리 동네 나눔방앗' 서비스와 연계한 일상편의 서비스 제공 ▲복지·보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서울 케어'의 추진 등이다.

뉴스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